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동반성장 지원이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중심으로 -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이 제 원

동반성장 지원이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상 인

이 논문을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이 제 원

이제원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8월

위 원 장 박 순 애 (인)

부위원장 권 일 응 (인)

위 원 박 상 인 (인)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진전에 있어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방식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눈부신 성장으로 인해 많은 개발도상국의 발전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소득, 규모 등의 격차가 더욱 심화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수행 및 동반성장 선도 은행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동반성장협력대출 상품을 출시하여 다수의 협력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였다.

본 연구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로 인해 도출할 수 있는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은 총자산의 양적 성장과 효율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총자산의 양적, 질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향후 대·중소기업 간의 금융지원 정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 성장부문에 촉매제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은 부채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처가 대기업으로 집중되어 있을수록 납품에 대한 결제 기한이 중소기업보다 짧거나, 저리의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수혜 받을 수 있는 협력 중소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은 일반 중소기업자금대출보다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의 하

청을 받는 중소기업이 높은 매출원가나 판매관리비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므로 향후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서 적절한 원가 분담 체계를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은 중소기업의 재무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더욱 폭넓은 업종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대출을 지원받은 후의 성과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원 전과 후의 성과 비교는 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성과 비교를 재무적인 부분만 강조한 나머지 고용 증대,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대표자의 의식 변화, 연구개발 실적 등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면 향후 더욱 좋은 연구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어 : 동반성장협력대출, 대·중소기업, 재무성과, 상생협력
학 번 : 2019-20443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4
제 1 절 중소기업의 정의	4
제 2 절 동반성장의 이론적 배경	7
제 3 절 동반성장 정책	10
1. 동반성장 정책의 필요성	10
2. 동반성장지수	14
3. 금융지원의 형태	16
4. 중소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17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18
1. 동반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8
2. 동반성장 활동의 실증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9
3. 동반성장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1
4. 기존연구의 한계	21
제 3 장 연구방법론	23
제 1 절 연구모형	23
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24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27
제 4 절 자료의 수집과 연구방법	31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32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32
제 2 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39
제 3 절 실증분석 결과	43
제 5 장 결 론	59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59
제 2 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61
제 3 절 연구의 한계	62
참고문헌	63
Abstract	66

표 목차

[표 2-1]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6
[표 2-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비교	12
[표 2-3] 동반성장지수의 기본 구조	14
[표 2-4]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평가 결과	15
[표 2-5] 동반성장지수 연도별 평가	16
[표 3-1] 연구가설 1	24
[표 3-2] 연구가설 2	25
[표 3-3] 주요 변수의 정의	29
[표 4-1] Propensity Score Information	32
[표 4-2]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수익성)	33
[표 4-3]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성장성)	34
[표 4-4]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안정성)	35
[표 4-5]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활동성)	36
[표 4-6]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업종별)	36
[표 4-7]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업력, 총자산, 신용등급) ...	37
[표 4-8] T+1기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40
[표 4-9] T+2기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41
[표 4-10] T+3기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42
[표 4-11]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총자산이익률과의 관계 ..	43
[표 4-12]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매출액영업이익률과의 관계 ..	44
[표 4-13]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총자산증가율과의 관계 ..	45
[표 4-14]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매출액증가율과의 관계 ..	46
[표 4-15]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부채비율과의 관계	47
[표 4-16]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자기자본비율과의 관계 ..	48
[표 4-17]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총자산회전율과의 관계 ..	49

[표 4-18] 기업의 업종과 총자산이익률과의 관계	50
[표 4-19] 기업의 업종과 매출액영업이익률과의 관계	51
[표 4-20] 기업의 업종과 총자산증가율과의 관계	52
[표 4-21] 기업의 업종과 매출액증가율과의 관계	53
[표 4-22] 기업의 업종과 부채비율과의 관계	54
[표 4-23] 기업의 업종과 자기자본비율과의 관계	55
[표 4-24] 기업의 업종과 총자산회전율과의 관계	56
[표 4-25] 가설검증 결과 요약	58
[표 5-1]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의 유의성 검증결과	59
[표 5-2] 대출 지원과 업종 간의 유의성 검증결과	60

그림 목차

[그림 2-1] 규모별 제조업 수익성 비교 추이	13
[그림 2-1] 동반성장협력대출 체계도	17
[그림 3-1] 연구모형	23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진전에 있어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방식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눈부신 성장으로 인해 많은 개발도상국의 발전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소득, 규모 등의 격차가 더욱 심화 되어 양극화 현상은 중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소기업조사 통계시스템 상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약 99.8%, 종업원 수의 약 81.8%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완충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동반성장과 관련한 사안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확대되어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받으면서 생산성은 하락하는 등의 원인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기업이 아닌 하청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지정하거나 대기업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등의 정책적 조치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주요 경제 정책 중 주요과제로 삼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기업-노동자, 대기업-중소기업 등 사회적 강자와 약자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 지원 방안을 지속 개선·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의 합의를 도출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여 2011년부터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대기업 계열사 등을 상대로 이행실적을 평가해 지수화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이행실적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협력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체감도 평가를 합산해 산출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연 1회(매년 1~5월) 실시되며,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종합평가는 연 1회(매년 1월~5월) 실시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를 통합하여 산정한 뒤 등급을 5개(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1~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보면 최우수·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수가 매해 증가하여 수치만으로 판단하였을 때에는 상생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2011년 6개에서 지난해 31개, 우수등급은 20개에서 64개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최우수 등급은 전체의 15%가 받고,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은 각각 35%를 받고 있어 구분하는 기준이 상대적이며 평가대상 기업이 늘어날 수록 최우수·우수 등급도 증가하는 평가 방식에서는 상생 수준이 향상되었는지 또는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심지어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체감도는 2013년(75.9점) 이후로 증가하다가 2015년(82.3점)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어 지난해(79.3점)엔 2013년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여 중소기업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이다.¹⁾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하여 느끼는 온도 차가 발생하는지를 중소기업은행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여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고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인 동반성장 금융지원이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준영(2019), “동반성장지수 정말 좋아졌나요?”, 더스쿠프, (2019 .7. 25(2019. 10. 17. 검색),<http://naver.me/xC864qII>

또한, 제한적인 표본으로 특정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여러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동반성장 금융지원과 일반 금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관해 폭넓게 실증분석함으로써 향후 동반성장 정책의 효과성 부분에 공헌할 것이라 예상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동반성장 금융지원이 협력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소기업은행에서 판매하는 여신상품인 “동반성장협력대출”²⁾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표본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동 상품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은행과 협약으로 예탁금을 조성하여 예탁금에 기반한 대출한도를 설정한 후, 추천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신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19.10월 현재 112개 대기업, 30개 중견기업, 50개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판매 중인 상품으로 해당 상품의 지원 여부가 협력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의 예탁금을 재원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제 1 절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은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에서는 중소기업이 나아가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업종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400억원~1,500억원 이하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있다.³⁾ 이 범위를 넘는 매출액이 발생하는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만 일정기간(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중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소기업은 역시 업종별 5단계 구분으로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시 소기업으로 별도 구분하고 있다. 중소기업 규모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수의 99.9%, 근로자 고용의 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핵심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경기활성화 목적과 일자리 창출 방안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4개 업종을 5단계로 나누어 평균매출액 규모에 따라 나누고 있다. 또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과 일치한다. 특히 총 사업체 수 증가에 비례하여 중소기업수의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 비중 추세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보편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 비중 증가는 최근의 고용률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윤선웅, 2019 재인용).

<표 2-1>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 명,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A)	사업체 수	3,234,687	3,354,320	3,418,993	3,545,473	3,604,773	3,676,499
	종사자 수	14,534,230	14,891,162	15,344,860	15,962,745	16,774,948	17,051,453
중소 기업 (B)	사업체 수	3,231,634	3,351,404	3,415,863	3,542,350	3,600,882	3,672,327
	종사자 수	12,626,746	13,059,372	13,421,594	14,027,636	15,127,047	15,392,246
중소 기업 비중 (B/A)	사업체 수	99.9	99.9	99.9	99.9	99.9	99.9
	종사자 수	86.9	87.7	87.5	87.9	90.2	90.2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8, 전국사업체조사

제 2 절 동반성장의 이론적 배경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결하고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전반적인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협력기업들의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김범석 외 2013).

동반성장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도모하고 창조와 혁신을 스스로 창출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산업계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모순과 과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어떠한 인프라가 필요한지의 핵심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장우, 2011; 강남신, 2014 재인용).

동반성장을 산업의 생태계적 관점, 산업의 균형적 발전, 원청과 하청기업 간의 상생협력 등의 협력적 관계로 비취본다면 동반성장에 관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적 근거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에 관한 이론은 크게 협력의 경제 측면에 주목하는 거래비용이론, 기업 간의 상호작용과 신뢰에 주목하는 네트워크 이론, 협력관리의 필요성과 지식 자원의 획득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를 강조하는 자원기반 이론(강용운, 2011), 공급사슬상에서 기업 간 협력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가치사슬사의 전체성과가 극대화된다는 공급사슬 이론(임종태, 2016), 기업경영환경을 자연 생태계적 환경과 비슷하다고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 기업생태계 이론, 게임에 참여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합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서로 협력할 때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협력적 게임이론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거래비용 이론, 기업생태계 이론, 네트워크 이론, 공급사슬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거래비용 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은 특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선택 대안 중 내부화보다 외부기업과의 거래비용이 낮은 경우에 기업 간 거래를 선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거래 비용적 관점은 제한된 합리성의 한계 내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회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위해서 완전한 시장거래와 조직거래의 중간형태 혹은 혼합형태의 기업조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Williamson, 1999; 강용운, 2011 재인용). Coase(1937)는 기업 간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을 독립된 계약 당사자들 간의 계약에서 찾았다. 거래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양극단은 시장과 기업이며, 시장은 거래 활동이 독립된 시장에서 행해지는 구조이고, 기업은 거래를 기업 경계 안으로 내부화한 거래 구조이다. 그리고 거래 구조의 선택 시 가장 효율적인 것은 거래비용이 최소화되는 거래를 선택하는 것이며, 거래비용 이론의 핵심 내용은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 거래적 특성, 자산 특수성, 그리고 불확실성이다(박윤희 외, 2012).

둘째, 기업생태계 이론이다. 기업 경영환경을 자연 생태계와 비슷하다고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성공적인 생태계의 조건을 경영전략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Moore(1996)는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생물학적 생태계와 같이 유기적 결합체이므로 내부의 진화를 위해서 공동체로서의 동일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경험의 확대 및 재생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업생태학적 관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진화와 생존으로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공진화해야 한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는 일방적인 배려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 이론이다. Wellman(1991)은 네트워크란 “자원이 동원되는 교환, 의존, 제휴와 같은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이면서 한 개인이나 혹은 타 기업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임종태, 2016),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경쟁우위를 창출, 유지하

는데 수많은 경영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독자적 행보보다는 다른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망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효율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시장거래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내부화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는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 즉, 경제 제도는 시장, 위계,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조직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이 더욱 일반적인 조직형태라는 가정에 바탕하고 있다(Powell, 1990)

네트워크 이론은 장기 차원에서 시장거래와 내부화의 양극단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관계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제휴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네트워크는 장기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조직체가 서로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의도 하에서 결속관계를 구축 및 유지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강용운, 2011)

넷째, 공급사슬관리 이론이다. Oliver and Webber(1982)에 의해 도입된 공급사슬관리는 공급사슬을 이루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장기적인 상호발전을 위해 기업의 모든 기능을 연결하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Mentzer et al.,2001). 공급사슬관리의 정의에 따르면 원청기업 뿐만 아니라 하청기업까지 함께 상호발전을 해야 한다는 동반성장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율로 인해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공급사슬관리는 원청기업의 비용절감과 같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선민, 2000; 임석철, 2000; 윤혁권, 2001; 민재형·김범석, 2013 재인용)

제 3 절 동반성장 정책

1. 동반성장 정책의 필요성

세계 경제는 대공황, 금융위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을 거치면서 이전보다 국가 간의 경제 상황이 긴밀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확인하였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의 확대와 국가 간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저금리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자국 산업의 보호 조치와 폐쇄적인 경제 체제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을 잃어 도태되고 말 것이다. 한 국가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전 세계와 기업은 과거와 같이 폭발적인 성장을 달성하기에는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성장과 분배는 필연적인 생존 방식이 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을 가져와 건전한 기업생태계 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관행은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으며 사회적 신뢰 기반을 약화시켰음을 물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1차적 요소가 되어왔다.(신영미, 2017)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추격형(Catch-up) 성장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며, 단기간 추격성장으로 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반성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윈윈의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하겠다. 변화된 기업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며,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라 할 수 있겠다.⁴⁾

임병선(2017)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심화는 대기업은 수직적 하도급관계, 시장지배력의 격차, 수익성 중시 경영과 중소기업은 기술력 부족과 혁신역량의 취약 등에 의해 발생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부족은 대기업 경우는 우수한 인력이 몰려드는 구직난과 중소기업은 인력이 모자라는 구인난이 발생하여 대·중소기업 간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의 원인도 있다. 그 결과 우수인력 중소기업 기피가 발생하고 혁신역량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정된 시장에서 대기업의 종속적인 공급관계로 말미암아 공급업체끼리의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대기업의 힘의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수직적, 일방적 관계였기 때문에 성과는 대기업이 차지하고 비용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 아래 <표 2-2>에서 보듯이 대기업의 2013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만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5.4% 증가 되었다. 즉, 대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환율변동, 유가 및 원자재 임금상승 등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 되었다. 일방적인 구매단가 인하, 구매계약 임의 변경, 세부기술자료 요구, 과당경쟁을 유도한 공개경쟁입찰 등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기업의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과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과당경쟁 및 혁신역량 취약, 대기업의 우월한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대기업 성장이 중소기업으로 연결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사라졌다고 밝히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참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장성 격차를 대·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 기준으로 살

4) 2015 동반성장백서,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펴보면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성장성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속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를 대·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앞서고 있으며, 2014년(0.13%)은 다소 줄었다가 2015(1.02%)년 다시 커지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양극화 극복의 과제라고 주장하였다.(임병선, 2017)

<표 2-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비교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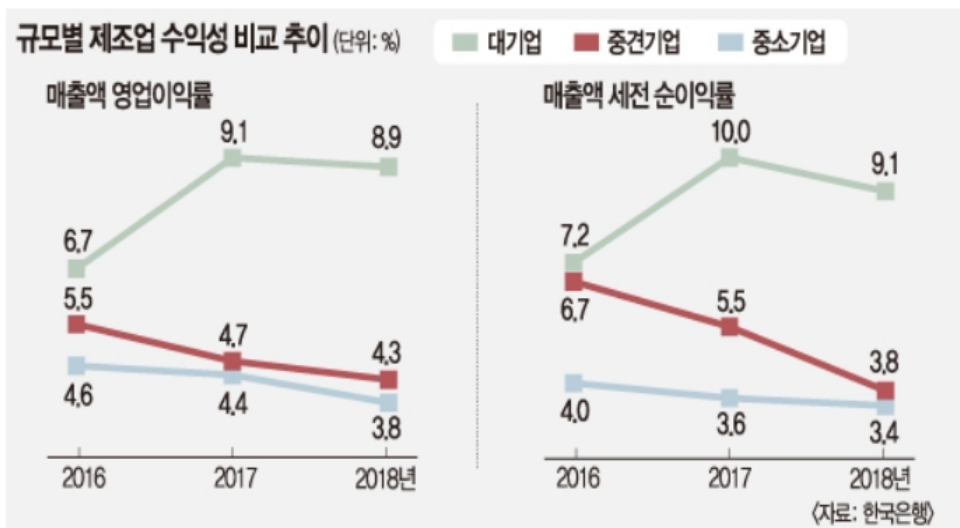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증가율 (성장성)	대기업(A)	14.33	4.09	-1.15	-3.46	-6.21
	중소기업(B)	11.69	4.54	5.18	3.48	4.35
	차이(A-B)	2.64	-0.45	-6.33	-6.94	-10.56
매출액 영업이익률 (수익성)	대기업(A)	6.13	5.43	5.57	4.25	5.40
	중소기업(B)	4.21	4.31	4.40	4.12	4.38
	차이(A-B)	1.92	1.12	1.17	0.13	1.02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제조업)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대·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격차의 변동폭은 컸으나,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격차의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아래 <그림 2-1>에서 보듯이 대기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은 2016년에 각 6.7%, 7.2%에서 2018년에 8.9%, 9.1%로 증가하는 반면, 중견기업은 각 5.5%, 6.7%에서 4.3%, 3.8%로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은 각 4.6%, 4.0%에서 3.8%, 3.4%로 감소하여 경기 부진의 직

격탄을 맞으며 업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기가 부진에 따라 대기업의 하청을 담당하는 중견·중소기업은 급작스런 매출처 다변화가 쉽지 않은 이상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하지만 대기업 하청 업체들의 연이은 도산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완성품을 판매하는 대기업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경기가 부진할수록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림 2-1> 규모별 제조업 수익성 비교 추이



2. 동반성장지수

정부는 2005년을 상생협력의 원년으로 삼고 상생협력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해결책으로 제시하여 2006년 4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외 경제 환경이 급변하게 되자 정부는 2010년 9월 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민간합의 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도모하고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 및 계량화하여 매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 공표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의 제도와 신뢰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220개 대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이며 매년 대상은 늘어나고 있다.

<표 2-3> 동반성장지수의 기본 구조(계속)

구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조사
대상	대기업	1·2차 중소기업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방식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중소기업 설문조사(정성)
시기	매년 1회(1~5월)	매년 1회(1~5월)
주요 평가 항목	1. 계약의 공정성(47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1. 거래관계(40점) · 불공정 거래 (구두발주,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 · 거래조건의 공정·적정성 (결제수단, 결제기간 등)
	2. 범위반 예방 및 범준수 노력(20점) · 범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범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2. 협력관계(30점)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로, 경영혁신, 인력개발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3. 상생협력 지원(33점) · 금융(자금)지원, 기술지원 및 보호 · 인력·채용 지원, 효율성 증대 정도 ·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도	3. 운영체계(30점) · 대기업의 인식 및 비전공유, 추진체계, 환경조성 등

주요 평가 항목	<input type="checkbox"/> (가점)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 CP협약결과, CCM인증, 제협약, 비협약사 대금지급조건 개선 등 <input type="checkbox"/> (감점) 범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input type="checkbox"/> (가점) 적합업종 준수, 성과공유제, 동반 성장 투자지원, 국내외 판로지원, 인력개발 및 교류지원, 동반성장 확 산 활동, 창조적 동반성장 활동 등 <input type="checkbox"/> (감점) 적합업종 불이행, 동반성장에 반하는 범위반 행위 시 등
-------------------------	---	---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표 2-4>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평가 결과

등급	기업명 (가나다 순, 회사의 종류 표시 생략)
최우수 (31개사)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만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유한킴벌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호반건설, CJ제일제당, GS건설,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우수 (64개사)	계룡건설산업, 남양유업, 대덕전자, 두산중공업, 롯데마트, 롯데정보통신, 롯데지알에스, 롯데하이마트, 르노삼성자동차, 빙그레,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SDI, 삼양사, 세메스, 신세계건설,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오뚜기, 오리온, 웅진코웨이, 유라코퍼레이션, 이랜드월드, 이마트, 제일기획, 카카오, 코닝정밀소재, 파리카라상,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케미칼, 풀무원식품, 한국야쿠르트, 한국인삼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양, 한화, 한화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오트모버,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홈쇼핑, 호텔신라, 화신, 효성중공업, CJ오쇼핑, CJ올리브네트웍스, GS리테일(GS25), GS홈쇼핑, HSD엔진, KCC건설, LF, LG하우시스, LS산전, SK실트론, SK하이닉스, SPC삼립
양호 (68개사)	가온전선, 경신, 고려아연,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농협유통, 대우건설, 대원강업, 대한항공(항공우주), 더페이스샵, 대상트코리아, 동국제강, 동원F&B,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건설,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알미늄,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롯데홈쇼핑,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매일유업, 부영주택, 삼성물산(패션부문), 삼호, 세방전지, 세아베스탈, 신세계인터내셔널, 쌍용자동차, 아성다이소, 이니스프리, 이랜드리테일, 일진전기, 코리아세븐, 코스트코코리아,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태영건설, 평화정공, 풍산, 하림, 하이트진로,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한국지엠, 한국프랜지공업, 한샘, 한온시스템, 한화케미칼, 해태제과식품, 현대모템, 현대위아, 현대중공업, 화승알엔에이, 휴맥스, 회성전자, BGF리테일, CJ푸드빌, GS리테일(GS수퍼마켓), HDC현대산업개발, LS엠트론,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LS전선, OCI
보통 (19개사)	다스,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켐, 볼보그룹코리아, 서울반도체, 성우하이텍, 신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오비맥주, 코리아씨키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 태광산업, 태평양물산, 파트론, 한국바스프, 한솔테크닉스, 홈플러스, DB하이텍, S&T모티브
미흡 (7개사)	덕양산업, 서연이화, 서연전자, 에코플라스틱,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타타대우상용차, 한솔섬유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표 2-5> 동반성장지수 연도별 평가

평가등급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최우수	-	-	14개사	19개사	25개사	25개사	28개사	31개사
우수	6개사	9개사	36개사	37개사	41개사	50개사	62개사	64개사
양호	20개사	29개사	36개사	42개사	46개사	58개사	61개사	68개사
보통	23개사	27개사	14개사	14개사	21개사	12개사	15개사	19개사
개선(미흡)	7개사	8개사	-	-	-	10개사	15개사	7개사
합 계	56개사	73개사	100개사	112개사	133개사	155개사	181개사	189개사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3. 금융지원의 형태⁵⁾

수·위탁거래에서 금융지원이란 위탁기업이 자신의 자금력이나 신용을 활용하여 수탁기업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는 대기업이 재무적 기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의 질적, 양적 수준을 제고함을 의미한다.

금융지원은 크게 ‘직접 자금대여’와 ‘간접 금융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 자금대여’는 대기업이 자기자금을 다른 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협력 중소기업에게 대여함을 의미하며, ‘간접 금융지원’은 금융기관에 자금예치,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펀드 조성, 보증기금 출연 등 대기업이 자기자금을 기초로 제3의 기관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동반성장 지원은 후자인 간접 금융지원 형태에 포함된다.

간접 금융지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이 있다.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면, 금융기관도 일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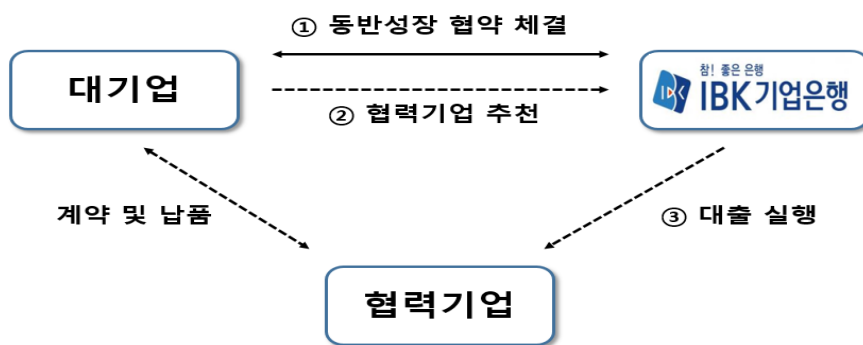
5) 주현, 홍지승, 홍석일(201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p.99

자금을 매칭하여 ‘상생펀드’ 등의 이름으로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용자한다. 둘째,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관에 보증기금을 출연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 하여금 협력 중소기업에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신용보증기관은 대기업이 출연한 금액의 일정 배수의 신용보증을 해당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게 된다. 셋째, 복수의 대기업 혹은 기관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용자 혹은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위의 세 가지 분류에 의하면 동반성장 지원은 첫 번째 경우인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용자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중소기업은행의 동반성장협력대출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수행 및 동반성장 선도 은행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행 간 업무협약 체결에 의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대기업의 예탁금을 재원으로 대기업과 계약 및 납품거래 실적이 있는 협력기업을 추천 받아 협력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림 2-2> 동반성장협력대출 체계도⁶⁾



6) 중소기업은행(2019), 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표 2-6> 동반성장협력대출 취급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예탁금	10,929	14,408	17,035	20,921	25,508	31,719	34,882	
협약기업 수	74	101	132	149	161	175	191	
공급	공급액	31,199	46,522	58,901	69,127	84,008	98,763	117,869
	협력 기업수	4,251	6,010	7,780	9,243	11,795	14,436	16,989

자료 : 중소기업은행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동반성장에 관한 연구, 동반성장 활동 실증분석에 관한 연구, 동반성장 정책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1. 동반성장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신영미, 이찬호(2018)에 의하면 동반성장(Win-Win Growth)은 학술적 용어가 아니라 정책 용어로,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서 경제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비전으로 동반성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그 후 학계 및 산업계에서 동반성장의 개념 및 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동반성장은 성과와 기회를 함께 나누는 공존의 원리로서 혁신과 창조력으로, 미래 성과와 성장 기회를 구성원 모두가 나누는 비즈니스 모델이자 경제 주체들의 이성과 합리성에 의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근본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면서, 상생

협력이라는 용어 대신 동반성장의 용어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이에 2010년 9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0년 12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협력업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반성장은 이장우(2011b)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반성장은 학술적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개념으로 시작되었으므로 기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연구와는 달리 정책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써 동반성장을 요구하게 된 계기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에서 이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2. 동반성장 활동의 실증분석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김이순(2013)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관점에서 대기업의 동반성장 전략이 중소기업의 목표관리 효과성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반성장의 전략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전략지원을 실행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중소기업별로 특화된 동반성장 전략을 처방하여 실행하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필요성을 느끼고 본인의 기업에 필요한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기업경영에 반영할 때 기업의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재형, 김범석(2013)의 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동반성장의 주체가 되는 대기업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기하면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있는 기업의 연간 주가수익률과 동반성장지수와와의 관계를 확인함으

로써 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기업의 재무성과 및 주가수익률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하여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 필요성을 시사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은 기업의 효율성과는 의미 있는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비효율을 야기하지만 기업의 유동성 및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주고, 수익성을 향상시킨다고 제시하였다. 나아가 시장에서 기업 이미지 상승효과까지 더해져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주가수익률을 상승시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김범석 외(2014)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11년 동반성장지수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4개 등급별 기업의 재무성과를 Kruskal-Wallis 검정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연구결과 총자산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은 동반성장지수 등급별로 차이가 존재하였고, 동반성장 노력이 재무성과를 개선시킨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신영미, 이찬호(2018)의 동반성장 활동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 따르면 동반성장 평가지수를 공시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연구 기간으로 한정하여 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수준(W-W Index_N)과 경영성과(ROA, ROE, 매출액영업이익률)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은 비용의 수반을 가져오므로 경영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박동환(2015)의 동반성장 활동의 지속성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 따르면 동반성장 평가지수의 등급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그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동반성장 노력과 활동은 기업의 성장성과 활동성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켜 주고 유동성 및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실증하였다.

3. 동반성장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박선곤(2013)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의 연구에서는 정부, 시민사회, 대기업, 중소기업 등 관련 부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그 중 대기업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문제 제공자로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많은 협력기업들과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동반성장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동반성장정책은 한국경제의 큰 문제점인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장우(2011)의 한국형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의 연구에서는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경제발전 상황과 사회 문화적 특성에 맞추어 특유의 동반성장 모델을 발전시켰으며, 한국도 독자적인 동반성장 모델의 실천을 통해 불공정 거래와 양극화 갈등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창조와 혁신을 성취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선진 경제에 도달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김기찬, 송창석, 박지윤(2007)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세분화와 전략에 따르면 위탁 대기업과 수탁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능력이나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이런 구분에 따라 각 유형별 대·중소기업간 관계를 상이하게 전개하여야 함을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 기존연구의 한계

기존의 선행연구는 동반성장 정책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후, 동반성장 정책에 관한 실증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며 동반성장 활동의 지속성,

대기업의 동반성장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의 동반성장, 동반 성장 노력 등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환(2015)의 동반성장 활동의 지속성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예로 들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평가대상 업체 수가 해마다 증가하였으나, 선정된 업체의 표본 수가 적었다는 부분, 상장업체 이외에 비상장 업체까지 포함하지 못한 부분, 협력 중소기업의 재무성과를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이정화(2017)의 중소기업 관점에서 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이 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생태계 구성원인 협력 기업들의 실증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을 연구의 한계로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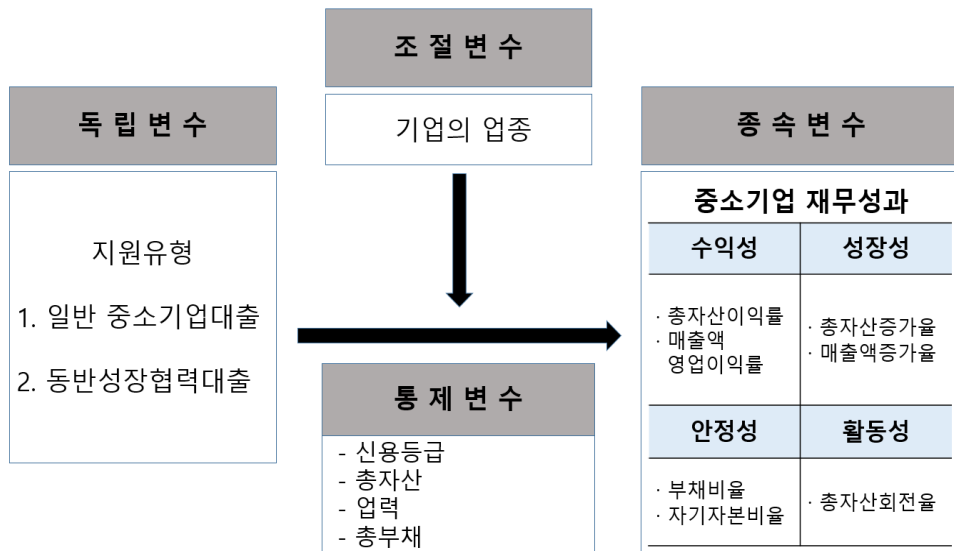
제 3 장 연구방법론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 효과와 일반 중소기업자금대출의 지원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두 기업군의 재무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재무성과 차이를 검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수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대출 지원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을 대표하는 재무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대출의 지원유형 이외에 신용등급, 총자산, 업력, 총부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1.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이 중소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은 일반 중소기업대출에 비해 금리 인하, 대기업으로부터 추천에 따른 지속적인 거래 관계 및 유대감 강화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작용하여 보다 높은 경영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재무성과 부분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활동성 지표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3-1> 연구가설 1

H1 :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대출을 지원받은 기업보다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이다.

H1.1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대출을 지원받은 기업보다 총자산이익율이 높을 것이다.

H1.2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대출을 지원받은 기업보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을 것이다.

H1.3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대출을 지원받은 기업보다 총자산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H1.4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대출을 지원받은 기업보다 매출액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H1.5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대출을 지원받은 기업보다 부채비율이 높을 것이다.

H1.6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대출을 지원받은 기업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을 것이다.

H1.7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대출을 지원받은 기업보다 총자산회전율이 높을 것이다.

2. 기업의 업종에 따른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용호, 김재진(2017)의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과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의 생산과급효과 의 경로 중 대기업의 직접효과와 중소기업으로의 낙수효과 측면에서 제조업이 여타 업종보다 생산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에 따른 재무성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3-2> 연구가설 2

H2 : 기업의 업종에 따라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에 따른 기업의 재무성과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H2.1 기업의 업종에 따라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에 따른 총자산이익률의 변동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H2.2 기업의 업종에 따라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에 따른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변동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H2.3 기업의 업종에 따라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에 따른 총자산증가율의 변동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H2.4 기업의 업종에 따라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에 따른 매출액증가율의 변동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H2.5 기업의 업종에 따라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에 따른 부채비율의 변동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H2.6 기업의 업종에 따라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의 변동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H2.7 기업의 업종에 따라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에 따른 총자산회전율의 변동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동반성장 금융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지원유형을 중소기업은행의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일반 중소기업대출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활동성을 대표하는 재무비율의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다른 외부변수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신용등급, 총자산, 업력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1. 종속변수

협력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활동성 지표를 재무성과로 선정하여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등급이 우수할수록 협력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의 성장성은 일정 기간 중 기업의 경영 규모나 경영 성과가 어느 정도 증대되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을 사용하였다. 매출액증가율은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당기 매출액과 전기 매출액의 차이를 전기매출액으로 나누어준 재무비율이다. 총자산증가율은 전기 대비 총자산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지표로 한 기업의 규모가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측정 가능하다.

기업의 수익성은 영업활동으로부터 이익과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이익률을 사용하였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준 재무비율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 외 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능률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이다. 총자산이익률은 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누어준 재무비율로 기업의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기업의 안정성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안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을 사용하였다. 자기자본비율은 일정한 시점에 자산과 부채의 균형상태가 어떠한지 분석하고 기업 재무가 현재 안정적이 상태인가를 측정하는 재무비율로,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누어준 비율이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준 것으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의 활동성은 자산 전체가 막힘없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를 측정하며, 자산이 얼마만큼의 매출액을 일으키는지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총자산회전율을 사용하였다.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준 것으로 기업이 사용한 총자산의 효율적 이용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한 것이며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준 재무비율로 재고자산이 당좌자산으로 변화되는 속도를 나타내며, 비율이 높을수록 현금화 속도가 빠름을 나타낸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중소기업은행의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일반 중소기업대출을 선정하였다. 동반성장 금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일수록 대기업과의 상생수준이 높았을 것이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재무성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동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3. 조절변수

기업의 업종은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에 따른 재무성과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변수는 기업이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미변수로 사용할 예정이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신용등급, 총자산, 업력, 총부채로 선정하였다. 통제변수를 정한 각각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기업 규모는 선행연구에서 통제변수로 많이 사용되었으며(국찬표, 강윤식, 2011; 박현일 외, 2013; 장지인, 최현섭, 2010) 국찬표와 강윤식(2011)의 연구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기업 규모는 연구에 따라 기업가치에 음(-)과 양(+)의 관계를 보인다는 상반되는 주장이 있긴 하나, 관련성을 보이므로 기업규모를 통제변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업력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설립 일자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3-3> 주요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	내용	비고
종속 변수	총자산 순이익률	$(\text{순이익} / \text{총자산}) \times 100$	수익성 평가
	매출액 영업이익률	$(\text{영업이익} / \text{매출액}) \times 100$	
	총자산증가율	$\{(\text{총자산}_t - \text{총자산}_{t-1}) / \text{총자산}_{t-1}\} \times 100$	성장성 평가
	매출액증가율	$\{(\text{매출액}_t - \text{매출액}_{t-1}) / \text{매출액}_{t-1}\} \times 100$	
	부채비율	$(\text{부채총액} / \text{자기자본}) \times 100$	안정성 평가
	자기자본비율	$(\text{자기자본} / \text{총자본}) \times 100$	
	총자산 회전율	$(\text{매출액} / \text{총자산}) \times 100$	활동성 평가
독립 변수	일반 중소기업대출/ 동반성장협력대출	일반 중소기업대출=0, 동반성장협력대출=1	

조절 변수	제조업 여부	더미변수(제조업=1)
통제 변수	신용등급	4단계 분류(신용등급별 1~4구간)
	총자산	3단계 분류(전년도 총자산 모형)
	업력	5단계 분류 (10년, 20년, 30년, 40년)
	총부채	지원년도 부채총계

제 4 절 자료의 수집과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논문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금융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향상의 지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군인 동반성장협력대출을 받은 중소기업과 대조군인 일반 중소기업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성과 분석을 하는 실증연구이다. 기준년도는 2015년으로 설정하여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대출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무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 분석을 할 예정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동반성장 금융지원의 효과성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사용할 계획이다. 동 방법은 실험군에 비해 대조군의 수가 많은 경우에 주로 적합한 방법으로 이용된다. 또한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지원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일반 중소기업대출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줄여 두 집단을 최대한 동질적으로 만들어 분석 결과가 과대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적용하였다.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종속변수인 재무성과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연도별 결측치가 발생하는 표본은 제외하였으며, 회계 처리 기준이 보다 엄격하며 신뢰성이 높은 법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지표의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기 위해 총자산이익률(+100% 이상이거나, -100% 이하), 매출액영업이익률(-200% 이하), 총자산증가율(300% 이상), 부채비율(1,000% 이상이거나, 0% 이하), 총자산회전율(1,000% 이상)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중소기업대출과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단순 비교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와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유사한 일반 중소기업대출을 선별하였다. 연구의 기준년도로 설정한 2015년도의 재무항목인 자본, 자산, 매출액을 성향점수 추정의 변수로 사용하여 매칭을 실시하였으며, 결과값은 아래 <표 4-1>과 같다.

아래 <표 4-1>은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PSM방식(성향점수매칭)으로 처리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칭 전 일반중소기업대출의 표본수는 22,515개, 동반성장협력대출은 표본수는 1,139개였으며 매칭이 이루어지기 전에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성향점수 차이는 0.015441점이였다. 매칭 후 일반중소기업대출의 표본수는 1,019개, 동반성장협력대출 표본수도 1,019개로 매칭이 이루어졌으며 매칭 후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성향점수 차이는 0.000015점으로 매칭 전보다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Propensity Score Information

구 분	Treated (동반성장협력대출)			Control (일반중소기업대출)			Treated- Control Mean Difference
	N	Mean (std)	Min, Max	N	Mean (std)	Min, Max	
매칭 전	1,139	0.628 (0.040)	0.016, 0.458	22,515	0.047 (0.028)	0.013, 0.734	0.015441
매칭 후	1,019	0.055 (0.036)	0.040, 0.581	1,019	0.055 (0.036)	0.040, 0.582	0.000015

다음으로는 종속변수 중 수익성 지표에 대한 기술통계량으로 아래 <표 4-2>와 같다.

<표 4-2>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수익성)

총자산 이익률	T+1		T+2		T+3	
	일반	동반성장	일반	동반성장	일반	동반성장
평균	3.83	4.02	3.38	4.04	2.42	2.86
표준 편차	6.18	7.47	5.60	7.96	6.49	8.00
최소	-33.40	-70.77	-34.26	-57.93	-64.71	-71.24
최대	38.96	52.45	34.63	76.84	34.48	61.49

대출액 영업 이익률	T+1		T+2		T+3	
	일반	동반성장	일반	동반성장	일반	동반성장
평균	4.30	4.02	3.94	3.56	2.78	1.95
표준 편차	10.28	7.47	10.38	8.95	13.33	13.56
최소	-157.11	-70.77	-124.91	-99.85	-152.97	-180.75
최대	50.89	52.45	51.04	64.36	60.52	45.79

수익성 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일반중소기업대출과 동반성장협력대출 집단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자산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수 중 성장성 지표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4-3>와 같다.

<표 4-3>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성장성)

총자산 증가율	T+1		T+2		T+3	
	일반	동반성장	일반	동반성장	일반	동반성장
평균	9.52	10.71	6.61	8.49	4.99	6.16
표준 편차	23.39	25.45	20.56	22.95	18.22	21.15
최소	-55.85	-54.60	-66.31	-60.64	-65.49	-57.87
최대	249.33	249.41	178.32	202.63	168.86	167.25

매출액 증가율	T+1		T+2		T+3	
	일반	동반성장	일반	동반성장	일반	동반성장
평균	7.77	8.32	9.17	10.15	2.77	2.88
표준 편차	39.31	37.70	39.28	45.77	35.63	33.80
최소	-85.59	-80.67	-84.60	-75.92	-92.12	-94.54
최대	367.88	482.74	653.64	736.32	451.10	426.50

성장성 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일반중소기업대출과 동반성장협력대출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자산이익률이 감소였으며, 매출액증가율은 2017년에 소폭 상승하다가 2018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 중 안정성 지표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4-4>와 같다.

<표 4-4>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안정성)

부채 비율	T+1		T+2		T+3	
	일반	동반성장	일반	동반성장	일반	동반성장
평균	203.59	177.53	189.90	166.71	183.67	162.85
표준 편차	158.72	139.09	148.43	128.30	151.85	131.01
최소	5.15	0.11	3.40	0.14	1.46	0.85
최대	983.33	987.76	974.83	993.88	948.14	953.27

자기 자본 비율	T+1		T+2		T+3	
	일반	동반성장	일반	동반성장	일반	동반성장
평균	40.94	43.67	42.64	45.20	43.82	46.16
표준 편차	18.00	17.97	18.58	18.62	19.06	19.00
최소	9.23	9.19	9.30	9.14	9.54	9.49
최대	95.11	99.89	96.71	99.86	98.56	99.91

안정성 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일반중소기업대출과 동반성장협력대출 모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채비율이 점차 하락하여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기자본비율 또한 점차 상승하여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종속변수 중 활동성 지표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4-5>와 같다.

<표 4-5>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활동성)

총자산 회전율	T+1		T+2		T+3	
	일반	동반성장	일반	동반성장	일반	동반성장
평균	122.95	135.63	123.63	134.19	116.88	128.76
표준 편차	89.37	91.65	94.76	93.47	91.09	95.09
최소	5.11	4.01	5.57	4.38	5.98	3.39
최대	743.75	739.72	920.94	818.64	794.51	784.55

활동성 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일반중소기업대출과 동반성장협력대출 모두 총자산회전율이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4-6>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업종별)

구 분	기업수		
	일반	동반성장	전체(비중)
제조	624	678	1,302(63.89)
비제조	395	341	736(36.11)
합 계	1,019	1,019	2,038(100.00)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성향매칭으로 일반중소기업대출과 동반성장협력대출 표본은 1,019개로 같으며 제조업 비중이 63.89%로 비제조업의 비중인 36.11%보다 높게 집계되었다.

통제변수인 업력, 규모, 신용등급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4-7>와 같다.

<표 4-7>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업력, 총자산, 신용등급)

업 력	기업수		
	일반	동반성장	전체(비중)
10년 미만	89	56	145(7.11)
20년 미만	428	419	847(41.56)
30년 미만	363	372	735(36.06)
40년 미만	90	122	212(10.40)
40년 초과	49	50	99(4.86)
합 계	1,019	1,019	2,038(100.00)

총자산	기업수		
	일반	동반성장	전체(비중)
총자산 20억원 미만	136	124	260(12.76)
총자산 20억원 이상	457	447	904(44.36)
총자산 70억원 이상	426	448	874(42.89)
합 계	1,019	1,019	2,038(100.00)

신용등급	기업수		
	일반(비중)	동반성장(비중)	전체(비중)
최우선	87	141	228(11.19)
우선	440	468	908(44.55)
지원	484	407	891(43.72)
억제	8	3	11(0.54)
제한	-	-	-
합 계	1,019	1,019	2,038(100.00)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업력은 10년 초과 20년 미만의 사업체가 847개(41.56%)로 제일 많았으며 40년 초과 사업체는 99개로(4.86%)로 가장 적었다. 총자산은 기업은행 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구분하였는데 총자산 2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신용등급은 5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우선지원 등급이 908개(44.55%)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고 억제 등급이 11개(0.54%), 제한 등급이 0개로 분포되었다.

제 2 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에 앞서 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한지, 변수 간 상관관계 강도 및 방향의 확인, 다중공선성을 의심할만한 지표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8>와 같다. 상관관계 강도는 -1.0 ~ 1.0의 값을 가지며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는 정의 방향을 (-)는 부의 방향을 나타낸다. 또한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가 0.8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고 실제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는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나 공차 한계(Tolerance)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다.

T+1, 2, 3기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공통점으로 독립변수인 동반성장협력대출 수혜 여부는 종속변수의 총자산이익률,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자기자본비율, 총자산회전율과 정(+)의 관계를, 매출액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관계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와 정반대 방향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래 <표 4-8> T+1기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4-9> T+2기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4-10> T+3기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확인하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8> T+1기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동반 성장 여부	업력	총자산	신용등급	총부채	제조업 여부	총자산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총자산회전율
동반 성장 여부	1												
업력	0.057 *** (0.009)	1											
총자산	0.024 (0.270)	0.457 *** (0.000)	1										
신용등급	0.102 *** (0.000)	0.190 *** (0.000)	0.186 *** (0.000)	1									
총부채	-0.033 (0.134)	0.268 *** (0.000)	0.456 *** (0.000)	-0.008 *** (0.706)	1								
제조업 여부	0.055 ** (0.012)	0.118 *** (0.000)	0.204 *** (0.000)	0.010 (0.652)	0.155 *** (0.000)	1							
총자산이익률	0.013 (0.532)	-0.110 *** (0.000)	-0.121 *** (0.000)	0.173 *** (0.000)	-0.094 *** (0.000)	-0.061 ** (0.005)	1						
매출액영업이익률	-0.050 * (0.024)	-0.068 ** (0.001)	-0.007 (0.724)	0.097 *** (0.000)	0.005 (0.808)	0.045 * (0.041)	0.562 *** (0.000)	1					
총자산증가율	0.024 (0.271)	-0.168 *** (0.000)	-0.149 *** (0.000)	0.036 (0.100)	0.038 * (0.080)	-0.036 (0.099)	0.257 *** (0.000)	0.153 *** (0.000)	1				
매출액증가율	0.007 (0.745)	-0.109 *** (0.000)	-0.091 *** (0.000)	-0.059 ** (0.006)	0.013 (0.533)	-0.013 (0.536)	0.280 *** (0.000)	0.203 *** (0.000)	0.306 *** (0.000)	1			
부채비율	-0.087 *** (0.000)	-0.155 *** (0.000)	-0.053 ** (0.016)	-0.416 **** (0.000)	0.111 *** (0.000)	0.117 *** (0.000)	-0.307 *** (0.000)	-0.127 *** (0.000)	0.088 *** (0.000)	0.048 * (0.027)	1		
자기자본비율	0.075 ** (0.001)	0.166 *** (0.000)	0.030 (0.163)	0.489 *** (0.000)	-0.162 *** (0.000)	-0.153 *** (0.000)	0.338 *** (0.000)	0.124 *** (0.000)	-0.109 *** (0.000)	-0.064 ** (0.003)	-0.849 *** (0.000)	1	
총자산회전율	0.069 ** (0.001)	-0.003 (0.874)	-0.091 *** (0.000)	-0.007 (0.733)	-0.128 *** (0.000)	-0.066 ** (0.002)	0.054 * (0.013)	0.034 (0.118)	0.071 ** (0.001)	0.232 *** (0.000)	-0.060 ** (0.006)	0.051 * (0.019)	1

<표 4-9> T+2기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동반 성장 여부	업력	총자산	신용등급	총부채	제조업 여부	총자산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총자산회전율
동반 성장 여부	1												
업력	0.057 ** (0.009)	1											
총자산	0.024 (0.270)	0.457 *** (0.000)	1										
신용등급	0.102 *** (0.000)	0.190 *** (0.000)	0.186 *** (0.000)	1									
총부채	-0.026 (0.228)	0.254 *** (0.000)	0.448 *** (0.000)	-0.003 *** (0.881)	1								
제조업 여부	0.055 ** (0.012)	0.118 *** (0.000)	0.204 *** (0.000)	0.010 (0.652)	0.151 *** (0.000)	1							
총자산이익률	0.047 * (0.032)	-0.130 *** (0.000)	-0.142 *** (0.000)	0.134 *** (0.000)	-0.119 *** (0.000)	-0.066 ** (0.002)	1						
매출액영업이익률	-0.019 (0.374)	-0.126 *** (0.000)	-0.067 ** (0.002)	0.104 **** (0.000)	0.012 (0.562)	0.040 (0.068)	0.546 *** (0.000)	1					
총자산증가율	0.043 (0.050)	-0.146 *** (0.000)	-0.161 *** (0.000)	0.028 (0.201)	0.023 (0.289)	-0.029 (0.177)	0.338 *** (0.000)	0.288 *** (0.000)	1				
매출액증가율	0.011 (0.605)	-0.063 ** (0.004)	-0.044 * (0.042)	0.027 (0.213)	0.003 (0.891)	-0.011 (0.602)	0.325 *** (0.000)	0.258 *** (0.000)	0.337 *** (0.000)	1			
부채비율	-0.083 *** (0.000)	-0.139 *** (0.000)	-0.026 (0.241)	-0.396 *** (0.000)	0.134 *** (0.000)	0.121 *** (0.000)	-0.289 *** (0.000)	-0.103 *** (0.000)	0.050 * (0.023)	-0.003 (0.893)	1		
자기자본비율	0.068 ** (0.001)	0.136 *** (0.000)	0.008 (0.705)	0.463 *** (0.000)	-0.184 *** (0.000)	-0.146 *** (0.000)	0.333 *** (0.000)	0.117 *** (0.000)	-0.049 * (0.026)	0.016 (0.450)	-0.857 *** (0.000)	1	
총자산회전율	0.056 * (0.011)	-0.085 *** (0.000)	-0.115 *** (0.000)	-0.018 (0.403)	-0.120 *** (0.000)	-0.318 *** (0.000)	0.248 *** (0.000)	0.000 (0.992)	0.042 (0.056)	0.183 *** (0.000)	-0.058 ** (0.008)	0.050 * (0.023)	1

<표 4-10> T+3기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동반 성장 여부	업력	총자산	신용등급	총부채	제조업 여부	총자산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총자산회전율
동반 성장 여부	1												
업력	0.057 ** (0.009)	1											
총자산	0.024 (0.270)	0.457 *** (0.000)	1										
신용등급	0.102 *** (0.000)	0.190 *** (0.000)	0.186 *** (0.000)	1									
총부채	-0.029 (0.179)	0.240 *** (0.000)	0.436 *** (0.000)	-0.003 (0.883)	1								
제조업 여부	0.055 * (0.012)	0.118 *** (0.000)	0.204 *** (0.000)	0.010 (0.652)	0.137 *** (0.000)	1							
총자산이익률	0.030 (0.170)	-0.093 *** (0.000)	-0.084 *** (0.000)	0.128 *** (0.000)	-0.108 *** (0.000)	-0.050 * (0.022)	1						
매출액영업이익률	-0.030 (0.164)	-0.055 * (0.011)	-0.023 (0.299)	0.064 ** (0.003)	-0.027 *** (0.223)	0.021 (0.338)	0.571 *** (0.000)	1					
총자산증가율	0.029 (0.179)	-0.109 *** (0.000)	-0.071 ** (0.001)	0.023 (0.280)	0.081 *** (0.000)	-0.047 * (0.031)	0.289 *** (0.000)	0.288 *** (0.000)	1				
매출액증가율	0.001 (0.943)	-0.020 (0.348)	-0.007 (0.745)	0.003 (0.876)	0.032 (0.140)	-0.011 (0.603)	0.289 *** (0.000)	0.258 *** (0.000)	0.220 *** (0.000)	1			
부채비율	-0.073 *** (0.000)	-0.134 *** (0.000)	0.005 (0.802)	-0.373 *** (0.000)	0.166 *** (0.000)	0.097 *** (0.000)	-0.289 *** (0.000)	-0.336 *** (0.000)	0.045 * (0.041)	-0.016 (0.459)	1		
자기자본비율	0.061 ** (0.005)	0.126 *** (0.000)	-0.015 (0.491)	0.443 *** (0.000)	-0.202 *** (0.000)	-0.139 *** (0.000)	0.333 *** (0.000)	0.315 *** (0.000)	-0.077 *** (0.000)	-0.018 (0.399)	-0.847 *** (0.000)	1	
총자산회전율	0.063 ** (0.004)	-0.056 * (0.010)	-0.085 *** (0.000)	-0.008 (0.691)	-0.107 *** (0.000)	-0.308 *** (0.000)	0.248 *** (0.000)	0.236 (0.992)	-0.010 (0.635)	0.171 *** (0.000)	-0.044 * (0.046)	0.035 (0.114)	1

제 3 절 실증분석 결과

1. 수익성 지표와의 관계

1.1 총자산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이 중소기업의 총자산이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11>와 같다.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한 결과, 결과 값이 1.16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1>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총자산이익률과의 관계

총자산 이익률	T+1			T+2			T+3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동반성장 협력대출	-.002	.296	-0.01	.529	.305	1.73	.272	.319	0.85
업력	-.704***	.179	-3.93	-.799**	.185	-4.32	-.660**	.193	-3.42
총자산	-1.091***	.266	-4.09	-1.161***	.274	-4.23	-.465	.286	-1.62
신용등급	2.141***	.225	9.49	1.784***	.232	7.68	1.619***	.242	6.67
총부채	-9.46	1.31	-0.72	-1.67	1.35	-1.24	-3.82**	1.40	-2.72
상수	.537	.899	0.60	1.833**	.926	1.98	-.287	.967	-0.30
R ²	0.062			0.058			0.039		
Adj. R ²	0.059			0.055			0.036		
F(sig.)	26.88***			25.05***			16.48***		
N	2,038			2,038			2,038		

* $p < .05$, ** $p < .01$, *** $p < .001$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총자산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2기의 경우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업력과 총자산은 작을수록, 신용등급은 높을수록 총자산이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이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12>와 같다. T+1, 2, 3기의 연구모형은 각각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2>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매출액영업이익률과의 관계

매출액 영업 이익률	T+1			T+2			T+3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동반성장 협력대출	-1.180*	.467	-2.53	-.441	.424	-1.04	-.959	.597	-1.61
업력	-1.102***	.282	-3.90	-1.493***	.256	-5.82	-.941**	.361	-2.61
총자산	.030	.419	0.07	-.895*	.380	-2.35	-.051	.533	-0.10
신용등급	1.892***	.355	5.33	2.094***	.322	6.50	1.615***	.453	3.56
총부채	2.46	2.06	1.19	5.70**	1.80	3.17	-1.06	2.41	-0.44
상수	.065	1.416	0.05	1.801	1.286	1.40	-.370	1.811	-0.20
R ²	0.021			0.039			0.010		
Adj. R ²	0.019			0.036			0.008		
F(sig.)	10.47***			16.58***			4.26***		
N	2,038			2,038			2,038		

* $p < .05$, ** $p < .01$, *** $p < .001$

동반성장협력대출이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1기의 경우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의 원가 인하 압박이나 비용 전가 등으로 인해 매출액 증가분 만큼 영업이익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업력이 작을수록,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총자산이익률이 높아지고, 총자산의 규모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T+2, 3기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이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성장성 지표와의 관계

2.1 총자산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이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13>와 같다. T+1, 2, 3기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3>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총자산증가율과의 관계

총자산 증가율	T+1			T+2			T+3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동반성장 협력대출	1.606	1.057	1.52	2.173*	.946	2.30	1.464	.866	1.69
업력	-4.023**	.640	-6.28	-2.658**	.572	-4.64	-2.436**	.523	-4.65
총자산	-6.116***	.950	-6.44	-5.996***	.849	-7.06	-2.837**	.773	-3.67
신용등급	3.448***	.804	4.29	2.587**	.719	3.60	1.774**	.657	2.70
총부채	3.05**	4.66	6.55	2.29**	4.02	5.68	2.19**	3.50	6.27
상수	18.777**	3.206	5.86	15.792**	2.871	5.50	9.313**	2.625	3.55
R ²	0.062			0.054			0.034		
Adj. R ²	0.059			0.052			0.032		
F(sig.)	26.85***			23.51***			14.60***		
N	2,038			2,038			2,038		

* $p < .05$, ** $p < .01$, *** $p < .001$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총자산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2, 3기의 경우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과의 거래로 인해서 기업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업력과 총자산이 작을수록,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총자산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T+1기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총자산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매출액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이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14>와 같다. T+1, 2기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T+3기의 경우 연구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4>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매출액증가율과의 관계

매출액 증가율	T+1			T+2			T+3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동반성장 협력대출	1.518	1.702	0.89	1.058	1.897	0.56	.258	1.548	0.17
업력	-3.672**	1.031	-3.56	-2.907*	1.147	-2.53	-.977	.936	-1.04
총자산	-4.476**	1.530	-2.93	-2.626	1.701	-1.54	-.910	1.383	-0.66
신용등급	-1.683	1.295	-1.30	2.922**	1.441	2.03	.592	1.176	0.50
총자산 상수	2.23**	7.50	2.98	1.25	8.06	1.55	1.18*	6.25	1.89
R ²	0.020			0.007			0.002		
Adj. R ²	0.017			0.005			0.000		
F(sig.)	8.28*			3.06**			0.92		
N	2,038			2,038			2,038		

* $p < .05$, ** $p < .01$, *** $p < .001$

동반성장협력대출이 매출액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1, 2, 3기 모두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매출액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안정성 지표와의 관계

1.1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이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15>와 같다. T+1, 2, 3기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5>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부채비율과의 관계

부채비율	T+1			T+2			T+3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동반성장협력대출	-10.788*	5.987	-1.80	-9.714*	5.601	-1.73	-7.263	5.743	-1.26
업력	-19.450***	3.625	-5.36	-17.725***	3.388	-5.23	-20.348***	3.471	-5.86
총자산	3.489	5.381	0.65	6.733	5.024	1.34	12.382***	5.130	2.41
신용등급	-86.668***	4.554	-19.03	-77.412***	4.257	-18.18	-74.842***	4.363	-17.15
총부채	1.54***	2.64	5.86	1.56***	2.38	6.56	1.76***	2.32	7.58
상수	543.645***	18.158	29.94	484.373***	16.989	28.51	460.397***	17.410	26.44
R ²	0.198			0.188			0.181		
Adj. R ²	0.196			0.186			0.179		
F(sig.)	100.89***			94.07***			90.19***		
N	2,038			2,038			2,038		

* $p < .05$, ** $p < .01$, *** $p < .001$

동반성장협력대출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T+1, 2기의 경우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라는 고정 거래선으로 인해 불필요한 부채를 늘릴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업력이 작고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총자산이 많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T+3기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이 부채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이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16>와 같다. T+1, 2, 3기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6>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자기자본비율과의 관계

자기자본 비율	T+1			T+2			T+3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동반성장 협력대출	.530	.683	0.78	.454	.716	0.63	.217	.737	0.29
업력	2.768***	0.413	6.69	2.389***	.433	5.52	2.491***	.446	5.59
총자산	-1.073*	.613	-1.75	-1.182*	.642	-1.84	-1.764**	.659	-2.68
신용등급	12.428***	.519	23.92	12.312***	.544	22.62	12.141***	.560	21.66
총부채	-2.51***	3.01	-8.33	-2.73**	3.04	-8.97	-2.80***	2.98	-9.41
상수	-6.195**	2.071	-2.99	-2.605	2.171	-1.20	.428	2.236	0.848
R ²	0.280			0.259			0.248		
Adj. R ²	0.279			0.257			0.247		
F(sig.)	158.65***			142.54***			134.70***		
N	2,038			2,038			2,038		

* $p < .05$, ** $p < .01$, *** $p < .001$

동반성장협력대출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1, 2, 3기 모두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부채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활동성 지표와의 관계

1.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영향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이 중소기업의 총자산회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17>와 같다. T+1, 2, 3기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7>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총자산회전율과의 관계

총자산회전율	T+1			T+2			T+3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동반성장협력대출	13.323**	3.980	3.35	10.967**	4.158	2.64	11.911**	4.128	2.88
업력	-4.603	2.410	-1.91	-3.951	2.515	-1.57	-2.115	2.495	-0.85
총자산	-14.035**	3.577	-3.92	-8.512*	3.730	-2.28	-5.456	3.688	-1.48
신용등급	-.534	3.027	-0.18	-.807	3.160	-0.26	-.570	3.136	-0.18
총부채	-4.59**	1.75	-2.62	-5.79**	1.77	-3.28	-5.64**	1.67	-3.38
상수	172.985**	12075	14.33	161.538**	12613	12.81	142.232**	12516	11.36
R ²	0.035			0.023			0.017		
Adj. R ²	0.032			0.021			0.015		
F(sig.)	14.82***			9.83***			7.31***		
N	2,038			2,038			2,038		

* $p < .05$, ** $p < .01$, *** $p < .001$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1, 2, 3기의 경우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과의 거래로 보유한 자산 대비, 효율적인 매출액을 달성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업력과 총자산이 작을수록,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총자산 회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조절효과를 고려한 수익성 지표와의 관계

5.1 총자산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업종의 조절효과가 중소기업의 총자산이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18>와 같다. T+1, 2, 3기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8> 기업의 업종과 총자산이익률과의 관계

총자산 이익률	T+1			T+2			T+3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동반성장 협력대출	-.418	.492	-0.85	.487	.507	0.96	.418	.530	0.79
업력	-.701***	.179	-3.91	-.789***	.184	-4.27	-.666**	.192	-3.46
총자산	-1.053***	.268	-3.92	-1.056***	.276	-3.82	-.422	.287	-1.47
신용등급	2.134***	.225	9.46	1.765***	.232	7.60	1.617***	.242	6.67
총부채	-8.38	1.31	-0.64	-2.16*	1.30	-1.66	-3.49**	1.29	-2.71
업종	-.739	.430	-1.72	-.499	.443	-1.12	-.298	.463	-0.64
동반성장 협력대출 × 업종	.683	.614	1.11	.098	.633	0.16	-.190	.661	-0.29
상수	.910	.927	0.98	1.992**	.952	2.08	-.192	.998	-0.19
R ²	0.063			0.059			0.039		
Adj. R ²	0.060			0.056			0.036		
F(sig.)	19.63***			18.41***			12.02***		
N	2,038			2,038			2,038		

* $p < .05$, ** $p < .01$, *** $p < .001$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업종의 조절효과가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1, 2, 3기의 경우 총자산회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업종의 조절효과가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19>와 같다. T+1, 2, 3기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9> 기업의 업종과 매출액영업이익률과의 관계

매출액 영업 이익률	T+1			T+2			T+3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동반성장 협력대출	-2.179**	.775	-2.81	-1.942**	.702	-2.76	-2.108**	.992	-2.12
업력	-1.124***	.282	-3.98	-1.519***	.255	-5.94	-.961**	.361	-2.66
총자산	-.131	.423	-0.31	-1.070**	.383	-2.79	-.188	.539	-0.35
신용등급	1.923***	.354	5.42	2.128***	.321	6.62	1.642***	.453	3.62
총부채	2.09	2.06	1.02	5.37**	1.80	2.98	-1.28	2.41	-0.53
업종	.544	.677	0.80	2.408	.640	3.76	.1223	.867	0.14
동반성장 협력대출 × 업종	1.457	.967	1.51	2.245*	.877	2.56	1.720	1.238	1.39
상수	.0.80	1.460	0.06	2.076	1.324	1.57	-.156	1.868	-0.08
R ²	0.025			0.046			0.012		
Adj. R ²	0.022			0.043			0.009		
F(sig.)	7.59***			13.94***			3.64***		
N	2,038			2,038			2,038		

*p<.05, **p<.01, ***p<.001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업종의 조절효과가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2기의 경우 업종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반성장협력대출을 받지 않을수록, 업력과 총자산이 작을수록,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1, 3기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조절효과를 고려한 성장성 지표와의 관계

1.1 총자산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업종의 조절효과가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20>와 같다. T+1, 2, 3기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0> 기업의 업종과 총자산증가율과의 관계

총자산 증가율	T+1			T+2			T+3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동반성장 협력대출	1.596	1.758	0.91	2.207	1.574	1.40	3.389	1.438	2.36
업력	-4.015***	.640	-6.27	-2.657***	.573	-4.64	-2.402***	.523	-4.59
총자산	-6.051***	.959	-6.30	-5.981***	.857	-6.97	-2.602**	.781	-3.33
신용등급	3.435***	.805	4.27	2.584***	.720	3.59	1.728**	.657	2.63
총부채 업종	3.06***	4.67	6.56	2.29***	4.03	5.68	2.23***	3.50	6.37
동반성장 협력대출 × 업종	.064	2.193	0.03	-.042	1.964	-0.02	-2.876	1.795	-1.60
상수	19.010***	3.311	5.74	15.822	2.965	5.34	8.971**	2.707	3.31
R ²	0.062			0.054			0.037		
Adj. R ²	0.058			0.051			0.034		
F(sig.)	19.20***			16.78***			11.26***		
N	2,038			2,038			2,038		

*p<.05, **p<.01, ***p<.001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업종의 조절효과가 총자산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1, 2, 3기의 경우 업종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매출액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업종의 조절효과가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21>와 같다. T+1, 2, 3기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1> 기업의 업종과 매출액증가율과의 관계

매출액 증가율	T+1			T+2			T+3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동반성장 협력대출	.647	2.831	0.23	2.332	3.154	0.74	3.579	2.574	1.39
업력	-3.678***	1.031	-3.56	-2.897**	1.148	-2.52	-.947	.936	-1.01
총자산	-4.502**	1.545	-2.91	-2.572	1.719	-1.50	-.736	1.397	-0.53
신용등급	-1.677	1.296	-1.29	2.911**	1.443	2.02	.557	1.176	0.47
총부채	2.23**	7.52	2.97	1.25	8.08	1.55	1.21*	6.26	1.93
업종	-.582	2.475	-0.24	.721	2.759	0.26	-3.544	2.344	-1.51
동반성장 협력대출 × 업종	1.356	3.532	0.38	-1.973	3.937	-0.50	-5.119	3.211	-1.59
상수	31.959***	5.332	5.99	10.494	5.943	1.77	2.784	4.844	0.57
R ²	0.020			0.007			0.003		
Adj. R ²	0.016			0.004			0.002		
F(sig.)	5.93***			2.22**			1.06***		
N	2,038			2,038			2,038		

*p<.05, **p<.01, ***p<.001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업종의 조절효과가 매출액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1, 2, 3기의 경우 업종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조절효과를 고려한 안정성 지표와의 관계

1.1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업종의 조절효과가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22>와 같다. T+1, 2, 3기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2> 기업의 업종과 부채비율과의 관계

부채비율	T+1			T+2			T+3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동반성장협력대출	-4.556	9.869	-0.46	-5.841	9.238	-0.63	2.530	9.506	0.27
업력	-19.925**	3.596	-5.54	-18.188**	3.363	-5.41	-20.684**	3.457	-5.98
총자산	-.626	5.387	-0.12	2.985	5.034	0.58	9.534*	5.161	1.85
신용등급	-85.888**	4.518	-19.01	-76.683**	4.226	-18.14	-74.291**	4.346	-17.09
총부채	1.44**	2.62	5.49	1.47**	2.37	6.22	1.71**	2.31	7.39
업종	43.691**	8.628	5.06	38.299**	8.079	4.74	33.989**	8.307	4.09
동반성장협력대출 × 업종	-12.857	12.313	-1.04	-8.852	11.528	-0.77	-17.405	11.861	-1.47
상수	525.676**	18.587	28.28	468.997**	17.403	26.95	445.448**	17.800	24.90
R ²	0.021			0.201			0.189		
Adj. R ²	0.021			0.198			0.186		
F(sig.)	78.52**			73.10**			67.86**		
N	2,038			2,038			2,038		

* $p < .05$, ** $p < .01$, *** $p < .001$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업종의 조절효과가 매출액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1, 2, 3기의 경우 업종의 조절효과가 부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과 업종의 조절효과가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23>와 같다. T+1, 2, 3기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3> 기업의 업종과 자기자본비율과의 관계

자기자본 비율	T+1			T+2			T+3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동반성장 협력대출	-289	1.119	-0.26	-.644	1.176	-0.55	-1.405	1.214	-1.15
업력	2.838***	.407	6.96	2.457***	.428	5.74	2.556***	.441	5.79
총자산	-.465	.610	-0.76	-.610	.641	-0.95	-1.214*	.659	-1.84
신용등급	12.314**	.512	24.03	12.203**	.538	22.68	12.084**	.555	21.68
총부채	-2.35**	2.97	-7.92	-2.59**	3.01	-8.60	-2.71**	2.95	-9.17
업종	-6.364**	.978	-6.50	-6.256**	1.028	-6.08	-6.310**	1.061	-5.95
동반성장 협력대출 × 업종	1.740	1.396	1.25	2.147	1.467	1.46	2.929	1.514	1.93
상수	-3.597*	2.107	-1.71	.010	2.215	0.00	3.158	2.285	1.38
R ²	0.301			0.277			0.264		
Adj. R ²	0.299			0.275			0.262		
F(sig.)	125.42***			111.48***			104.47***		
N	2,038			2,038			2,038		

* $p < .05$, ** $p < .01$, *** $p < .001$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업종의 조절효과가 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1, 2, 3기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조절효과를 고려한 활동성 지표와의 관계

1.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영향

동반성장협력 대출 지원과 업종의 조절효과가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24>와 같다. T+1, 2, 3기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4> 기업의 업종과 총자산회전율과의 관계

총자산회전율	T+1			T+2			T+3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동반성장협력대출	24772***	6.2943	3.94	24177***	6.584	3.67	30.378***	6.537	4.65
업력	-3.753	2.293	-1.64	-3.026	2.397	-1.26	-1.127	2.378	-0.47
총자산	-7.164*	3.435	-2.09	-1.330	3.588	-0.37	1.975	3.549	0.56
신용등급	-1.834	2.881	-0.64	-2.191	3.012	-0.73	-2.015	2.988	-0.67
총부채	-2.92*	1.67	-1.75	-4.20**	1.69	-2.49	-4.41**	1.59	-2.78
업종	-52308***	5.502	-9.51	-52813***	5.758	-9.17	-47.663***	5.713	-8.34
동반성장협력대출 × 업종	-13.039	7.852	-1.66	-15.609*	8.216	-1.91	-24.039**	8.157	-2.95
상수	190286***	11.854	16.05	178384***	12.408	14.40	155.916	12.303	12.67
R ²	0.127			0.115			0.109		
Adj. R ²	0.124			0.112			0.106		
F(sig.)	42.43***			37.70***			35.77***		
N	2,038			2,038			2,038		

* $p < .05$, ** $p < .01$, *** $p < .001$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업종의 조절효과가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1, 2, 3기의 경우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은 비제조업의 중소기업일수록 총자산회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아래 <표 4-25> 가설검증 결과 요약을 확인하면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에 따라 일부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채택된 항목 중 총자산증가율이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제품 및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총자산의 증가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었다고 가늠할 수 있겠다. 또한 총자산회전율이 높은 것은 총자산 증가대비 매출액이 높았다는 것인데 이는 생산 규모가 큰 대기업과의 거래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생산으로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설이 채택된 부채비율 항목은 대기업이라는 고정적인 대형 거래처의 존재로 불필요한 시설투자 및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운전자금 증가 등으로 부채를 늘릴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총자산순이익률은 동반성장 활동에 따른 비용 증가 및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동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의 하락은 매출액증가율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발생하였고 선행연구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동반성장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신영미 외, 2018). 또한 매출액증가율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사가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매출·매입처가 다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라 추정한다. 안정성 항목인 자기자본비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앞서 총자산증가율에서 언급하였듯이 상대적으로 총자산이 높기 때문에 총자산회전율의 분모의 항목인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총자산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업종에 따른 조절효과는 동반성장 활동에 따른 비용 증가가 제조업이 비제조업 대비하여 적게 발생할 수 있고, 제조업일 경우 계획된 투자가 더욱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25> 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 설				결 과	
동반 성장 협력 대출	수익	총자산 이익률	1.1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 여부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이다.	기각
		매출액 영업이익률	1.2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 여부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이다.	기각
		총자산 증가율	1.3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 여부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 을 보일 것이다.	일부 채택
	성장	매출액 증가율	1.4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 여부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이다.	기각
		안정	부채비율	1.5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 여부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 을 보일 것이다.
	자기자본 비율		1.6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 여부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이다.	기각
	지원 여부	활동	총자산 회전율	1.7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 여부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 을 보일 것이다.
업 종 의 동반 성장 협력 대출	수익	총자산 이익률	2.1	업종에 따라 변동 효과는 차이가 발 생할 것이다.	기각
		매출액 영업이익률	2.2	업종에 따라 변동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일부 채택
		총자산 증가율	2.3	업종에 따라 변동 효과는 차이가 발 생할 것이다.	기각
	성장	매출액 증가율	2.4	업종에 따라 변동 효과는 차이가 발 생할 것이다.	기각
		안정	부채비율	2.5	업종에 따라 변동 효과는 차이가 발 생할 것이다.
	자기자본 비율		2.6	업종에 따라 변동 효과는 차이가 발 생할 것이다.	기각
	지원 여부	활동	총자산 회전율	2.7	업종에 따라 변동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은행에서 판매 중인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일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비교하여 자금 지원이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업종을 조절 변수로 선정하여 업종에 따른 지원 효과를 살펴보았다. 2015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여 T+1기(2016년), T+2기(2017년), T+3기(2018년)의 종속변수인 7가지 재무비율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검증결과는 아래<표 5-1>, <표 5-2>와 같다.

<표 5-1>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의 유의성 검증결과

구 분	총자산 이익률	매출액 영업 이익률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총자산 회전율
T+1	-	0.012* (-)	-	-	0.041* (-)	-	0.001** (+)
T+2	-	-	0.038* (+)	-	0.031* (-)	-	0.006** (+)
T+3	-	-	-	-	-	-	0.003** (+)

* $p < .05$, ** $p < .01$, *** $p < .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

재무비율 중 4가지 항목에서 유의한 결과가 검증되었으며 정(+)의 효과는 총자산증가율과 총자산회전율 항목에서 발생하였으며, 부(-)의 효과는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부채비율 항목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은 총자산증가율, 총자산회전율을 높여주고,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제품 및 상품에 따른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자산의 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총자산과 관련된 성장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채비율은 대기업이라는 고정적인 대형 거래처로 인하여 불필요한 부채를 늘릴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 매출액영업이익률의 하락은 매출액증가율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선행연구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동반성장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신영미 외, 2018).

<표 5-2> 대출 지원과 업종 간의 유의성 검증결과

구 분	총자산 이익률	매출액 영업 이익률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총자산 회전율
T+1	-	-	-	-	-	-	-
T+2	-	0.011* (+)	-	-	-	-	0.001** (+)
T+3	-	-	-	-	-	-	0.003** (+)

* $p < .05$, ** $p < .01$, *** $p < .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

대출 지원과 업종의 조절효과의 검증결과, 대출 지원에 있어서 정(+)의 효과가 확인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제조업일 경우 정(+)의 효과가 발견됨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동반성장 활동에 따른 비용 증가가 제조업이 비제조업 대비하여 적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출 지원에 있어서 정(+)의 효과가 발생한 총자산회전율 항목에서도 제조업일 경우 정(+)의 효과가 발견됨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제품 및 상품의 생산에 따른 계획된 투자가 제조업일 경우 더욱 효율적이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업종에 대한 조절효과의 결과값은 많은 부문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 2 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이상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기업군은 총자산의 양적 성장과 효율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총자산의 양적, 질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향후 대·중소기업 간의 금융지원 정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 성장부문에 촉매제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기업군은 부채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처가 대기업으로 집중되어 있을수록 납품에 대한 결제 기한이 중소기업보다 짧거나, 저리의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수혜 받을 수 있는 협력 중소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기업군은 총자산회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거래 중인 중소기업은 보유한 유동, 비유동자산을 최대로 가용하여 많은 매출액을 실현한 것이다. 따라서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적기 지원과 확대로 우량자산 증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기업군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이 높은 매출원가나 판매관리비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므로 향후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서 적절한 원가 분담 체계를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지원한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일반 중소기업대출을 수혜받은 중소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활동성의 재무성과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고 업종에 따른 지원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동반성장 정책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자료수집의 한계로 자금 지원에 따른 재무성과를 단기적인 측면에서 진행한 경향이 짙다. 조금 더 장기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면, 지원 효과를 장단기로 구분하여 또 다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동반성장협력대출이라는 상품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최초로 취급하였고 은행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취급하였으나, 후발 주자인 타 은행에서도 유사한 상품의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의 데이터 뿐만 아니라 타 은행의 데이터를 포함하였다면 통계 결과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는 대출을 지원받은 후의 성과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원 전과 후의 성과 비교는 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성과 비교를 재무적인 부분만 강조한 나머지 고용 증대, 동반성장 에 대한 중소기업 대표자의 인식 변화, 연구개발 실적 등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특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이러한 방법론이 표본 간의 완벽한 통제를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 추후 더욱 많은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동반성장위원회(2015), 『2015 동반성장백서』, 서울
주현, 홍지승, 홍석일(201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논문>

강용운(2011),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석사학
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권예경(2015), “동반성장 우수 대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제
회계연구, 제61집, 한국국제회계학회
김금숙(20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유형별 사례분석”, 의사결정학연
구, 제19집 제1호, 한국의사결정학회
김기찬, 송창석, 박지윤(2007),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유형의 세분화와
전략 : 중소기업의 L, A, J 유형 분류와 성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29집 제4호, 한국중소기업학회
김이순(2013), “대기업의 동반성장 전략이 중소기업의 목표관리 효과성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경남대학
교 대학원
남종석, 김중호(2017), “거래집중도가 협력중소기업 유형자산투자에 미치
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30권 제6호, 한국산업경제학
회
민재형, 김범석(2013), “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KoreaScience, 제30권 제2호, 한국경영과학회
박동환(2015), “동반성장 활동의 지속성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
향”,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술사업정책전
공

- 박선곤(2013),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송혁준,이문영(2016), “대기업의 동반성장활동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친 효과 : 삼성전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5권 제5호
- 신영미(2017), “기업의 동반성장활동이 경영성과 및 경영성과정보의 가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 신영미,이찬호(2018), “동반성장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 윤선웅(2019),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이용호,김재진(2017), “대·중소기업 간 생산과급효과 분석 :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30권 제6호, 한국산업경제학회
- 이장우(2011), “한국형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중소기업연구, 제33권 제4호, 한국중소기업학회
- 이정화(2017), “중소기업 관점에서 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이 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학
- 임종태(2014),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활동이 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 :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술사업정책전공
- 엄상인(201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결정에 대한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 심상규(2011), “중소기업의 대기업 매출비율과 수익성간의 관계”, 벤처창업연구, 제33권 제4호, 한국벤처창업학회
- 정재을(2018), “동반성장정책이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82집, 한국국제회계학회
- 정해웅(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동반성장이 경영성과 및 기

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글로벌 서비스 경영

한산용,김주일(2018), “상생협력, 핵심역량 강화가 관계자본과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허정미(201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핵심역량과 협력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신문·잡지 기타>

고준영(2019), “동반성장지수 정말 좋아졌나요?”, 더스쿠프, (2019 .7. 25(2019. 10. 17. 검색), <http://naver.me/xC864qII>)

Abstract

The Impact of Associated Growth Cooperation Loans Support on Financial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Focused on the case of Industrial bank of Korea -

Lee Je wo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progress of industrialization, South Korea achieved rapid growth through export-led methods led by large enterprises. It has been cited as a development model for many developing countries due to its remarkable growth. However, behind the scenes, the gap in technology, income and scale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dened even further.

Therefore, Industrial Bank of Korea launched a product called "Associated Growth Cooperation Loans" aimed at promoting the coexistence of large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ulfilling the role of policy-bas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positioning them as

"Associated Growth Leading Banks," and provided support for low-interest funds to a large number of partner companies.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upport for "collateral growth coopera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growth of total assets, which is the sum of all assets of economic value.

Secondly, it was found that support for "co-financing with growth" had a negative effect on operating profit margins of sales than on general financing for SMEs. This is probably a case in which costs of sales and sales management can be passed on to subcontractors such as SMEs in transactions with large enterprises.

Thirdly, it was found that "collateral growth cooperation loans" were effective in improving the debt ratio. Prior to this, it is said that the support for co-financing with growth will lead to an increase in total assets. However, the decline in the debt ratio and increase in total assets can be interpreted as a steady growth with an expanded capital base.

Combined with these results, it is understood that the support for joint growth will contribute to the financial improvement of SMEs, and measures must be taken to assist SMEs in a wider range of industries and in the blind zone of support.

The disappointing part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results after the loan support were focused on, so the results before and after the support could not be compared. In addition, it would be a better

research method in the future if data on increased employment, changes in the attitudes of representatives of SMEs toward accompanying growth,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performance were accumulated to emphasize only the financial aspects of the results comparison.

keywords : Associated Growth Cooperation Loans,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inancial Performance, Win-Win Cooperation

Student Number : 2019-20443